

한·중 ESCO교류, 협회가 나선다.

오혜은 기자(hi9187@hanmail.net)





ESCO협회(회장 유제인)가 국내 ESCO 분야의 중국 진출에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 6월 15일, ESCO협회 주관으로 중국 제남시와 '2007 중국 제남시 기업에너지절약 협력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것.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제남시 장건국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업계 대표 50여명이 방한했으며 국내 ESCO 업체 등 양국간 에너지절약 분야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해 에너지절약에 대한 양국간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설명회에 앞서 유제인 ESCO협회장을 비롯해 이범용 부회장, 황건희 부회장 등 우리나라 ESCO협회 인사들은 장건국 제남시장, 부시장 왕천, 송옥국 주임 등 제남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유제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상담회가 양국간 ESCO 분야의 활발한 기술교류의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며 양국 간의 적극적인 기술 교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장건국 시장은 "이런 자리를 마련한 ESCO협회에 감사 드린다"며 "제남시는 활발한 경제발전에 발맞춰 에너지절약사업과 온실가스감축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설명회로 중한합작 강화를 통해 에너지절감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 유재인 회장과 장건국 제남시장



국내 기업들의 투자지로 꼽히고 있는 제남시는 뚜렷한 지리적 우위와 편리하고 발달된 교통, 튼튼한 산업 기반으로 교통장비, 전자정보, 야금철강, 석유화학섬유, 기계설비, 식·약품 등 6대 주도산업이 중국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다. 또, 신기술, 정보산업이 발달되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중국 종합랭킹 4위를 점하며 서비스 아웃소싱 분야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제남시는 국내 총생산 280억 달러, 연평균 4500달러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남시는 현재 '11차 5개년 계획'에

서 마련된 경제발전 및 에너지 소모절감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매년 경제 성장률 13.4%이상, 에너지 소모량도 매년 7.7%이하의 성장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발전과 산업구조의 최적화, 산업수준의 향상, 국제합작 활성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에너지절감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에 국내 기업의 중국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진출은 밝다.

이날 설명회는 왕천의 제남시 부시장의 '중국 제남시 기업절약현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주)이앤이시스템 문상국 이사가 '산업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사례', 삼성에버랜드(주) 최장하 팀장이 '에너지빅스 에너지사업 소개', (주)에너지솔루션즈 송인규 이사가 '에너지절약 사례 및 신재생에너지 소개', (주)케너텍 이승원 상무가 '소형 가스열병합발전시스템' 등에 대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중국 제남시 경제위원회와 국내 ESCO협회의 협력협약서 조인식이 이어졌으며 제남시와 한국GS 등 국내 업체와의 협력프로젝트 조인식도 이뤄졌다.

이날 설명회가 끝나고 양국 업체간 ESCO사업 상담회가 행사장 앞 로비에서 진행됐다.

이 시간에는 우리측 기업 이앤이시스템(대표 유제인)과 성립산업개발(대표 김동욱), 삼성에버랜드(대표 박노빈), 화인(대표 손호영), 에너지솔루션즈(대표 이범용), 벽산건설(대표 김인상), 케너텍(대표 정복임), 한국하니웰(대표 박성호)이 중국 업체인 제남철강, 산동명수화공, 제남신북방모형, 제남제이선반그룹, 제남원수, 제남제사건축그룹, 제남중공, 제남잉크사와 사업관련 일대일 상담시간을 가졌다.

이번 제남시와 ESCO협회간 협력협약서 조인에 따라 양기관은 상호 발전방안 모색과 함께 에너지절약 분야에 대한 업계 교류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에 앞서 올해 1월 9일 왕톈웨이 제남시 인민정부 부시장, 지양동평 제남시 대외무역경제협력 부국장, 루쯔지엔 제남시 과학기술국 부국장, 리중푸 제남시 과학기술국 부국장, 리중푸 제남시 과학기술협회

부주석 등 중국 제남시 정부 관계자들이 국내 에너지 절약기술의 벤치마킹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다. e



▲ 양국 업체 상담 모습

